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어떤 양심선언

생들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연행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스승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총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생인 최종선은 1972년에 중앙정보부 정구 과장 제9기에 수석으로 합격, 73년 당시에는 최고의 보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앞의 글은 동생인 최종선이 형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5국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진 출두 형식으로 형을 안내하는 장면을 최종선이 묘사한 것이다. 최종선은 출퇴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출입자 통제소에 들러 형이 귀가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때마다 형의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0월 19일 새벽 5시경, 중앙정보부 당직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오전 7시까지 당직실에 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최종선은 ‘올 것이 온 것’을 직감했다. 검찰 과장 이병정은 최종선의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 하지. 최 교수께서 오늘 새벽 1시 30분, 자신의 간첩 행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에서 투신자살하여 돌아가셨어.”

1973년 10월 25일,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유립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간첩단 54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들 중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으며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이것이 박정희 유신 시대 의문사 1호 사건인 최종길 교수의 죽음 전말이다. 의사인 부인조차 시신을 보지 못했고, 장례에는 그 누구도 참석지 못하게 한 채 간첩이란 누명까지 쓰고 최종길 교수는 모란공원 묘지에 묻혔다.

2002년 5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최종길 교수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허위로 날조된 것이었음을 밝혔다. 사실이 아니라 고문치사 된 것이요, 간첩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고 그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은 당당한 법학 교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동생 최종선의 ‘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수기는 1974년 1월, 응암동 천주교회 합세용 신부에게 전달되어, 장독대와 수녀원 등을 거치면서도 용케 일실(逸失)을 면했다.

지학순 주교가 1974년 7월 23일 “소위 유신 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민주 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 과 강압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

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민주화 투쟁의 한 방편으로 양심선언 운동을 제창하기 이전에 쓰였지만, 최종선의 수기를 나는 양심선언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1973년 10월 26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쓴 그 양심선언의 시작과 끝은 이렇다.

“1973.10.26.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최적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지금의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후일을 위해 형님의 죽음에 대한 오늘의 한을 생생히 남겨 두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형님에게 반역자(간첩)의 누명을 씌워 대대적으로 보도한 어제저녁, 쇼크를 가중하여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감시 범위 속에 남아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뜻하는 글을 제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준, 희정(최종길 교수의 유자녀)! 최 교수의 자식답게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거라.”

그 최종선이 미국에서 살다가 며칠 전 서울에 다녀왔다. 나는 그의 양심선언을 1988년 10월,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인연이 있다. 그는 이 양심선언을 보완한 ‘산자여, 말하라’ (2001, 공동선)는 책도 썼는데, 그는 이 책을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 제2의 양심선언이자 고해성서라고 말하고 있다.

기고

꿈꾸는 새네기가 아름답다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라게 한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생각난다. 피겨 불모지에서 태어난 그녀지만, 어떠한 감탄과 수식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운 기술과 연기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직도 김 선수가 금메달을 뒀을 때 걸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녀를 세계 최고로 우뚝 세게 만든 것은 파나는 노력, 자질, 열정, 부모님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꿈꾸는 방향대로 걸어온 삶. 그 결과 그녀는 오래도록 품어온 꿈을 이루었다. 충실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그녀의 가슴 뛰는 삶을 지탱해준 것이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미래가 현실을 만든다고 했다. 사람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머릿속에 있는 꿈이나 비전이 바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꿈이 현재의 자신을 만든다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꿈이 있

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꿈은 세상의 어떤 고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이 있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 꿈이 있는 동안은 아름답고 힘이 있으며, 젊음이 용솨솨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수 있다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잡지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쉽게 포기되고, 모든 것은 상실될 것이다.

젊음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또 다른 의미이다. 소박한 꿈을 달성하며,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자. 소중한 젊음을 낭용하지 말자. 젊은 시절 꿈을 갖고, 그 꿈을 가꾸어 가지 마라. 막연하게 꿈만 꾸며 현실에 쫓겨 살다 보면 품었던 꿈이 멀어지지만, 정해진 방향이 있다면 계획보다 더 빨리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늘 가야만 하는 길이 있으며, 희망찬 미래가 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다. 이제 다시 꿈을 꿀 시간이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 새내기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자격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꿈만 정해놓고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꿈은 세상의 어떤 고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이 있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 꿈이 있는 동안은 아름답고 힘이 있으며, 젊음이 용솨솨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수 있다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잡지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쉽게 포기되고, 모든 것은 상실될 것이다.

젊음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또 다른 의미이다. 소박한 꿈을 달성하며,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자. 소중한 젊음을 낭용하지 말자. 젊은 시절 꿈을 갖고, 그 꿈을 가꾸어 가지 마라. 막연하게 꿈만 꾸며 현실에 쫓겨 살다 보면 품었던 꿈이 멀어지지만, 정해진 방향이 있다면 계획보다 더 빨리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늘 가야만 하는 길이 있으며, 희망찬 미래가 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다. 이제 다시 꿈을 꿀 시간이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 새내기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자격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꿈만 정해놓고 노력을 기울이

청춘 특·특

꿈을 이루려면



김창환 진로 코칭 전문가

가 찾아온다. 그때 내가 생각해도 기록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해보자. ‘리얼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도로갓길을 지나가는 어르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날 서로 바빠 안부만 묻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는, 이뤄지지 않아도 말하는 것만으로 신나는 나만의 기록한 아이디어를 친구가 받아들인다.

“며칠간 고민하던 것인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난 리어가 손잡이를 세우기보다 꿈을 닦아가는 순간에 관우와 장비를 만났고, 구철회됐을 때 제갈량을 만나 꿈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내 개인의 꿈을 향해 가는데 왜 동료와 함께 해야 하는 걸까?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세대적 연대감이 낮은 청년 때 왜 동료가 필요한 것일까? 경쟁하는 사회에서 동료가 도대체 뭐길래. 어느 날 밤 침대에서 문득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때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수백, 수천 번 자신만의 생각을 할 때

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즉 사회 문제를 개인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해결점을 개인이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 할아버지의 리어카는 문제적 요소가 다양한 현상과 시스템의 작동이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오랜 시간 축적돼 왔기 때문이다. 개인이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를 풀어내기 어렵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 역시 필요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일도 남아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시점에 나와 같은 아이디어를,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고민으로 끌어들이는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인 척하는 운명이 가깝다. 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헬퍼, 지지자, 제 3의 효과(시너지)를 가져올 사람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고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의 깊이에 한 달이나 1년의 시간적 차이

가 있어도 좋다. 같은 문제 의식과 고민의 지속성, 동일한 주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인물을 만난다는 게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운명의 대상을 만나면 내 고민과 아이디어는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이는 꿈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만화 ‘원피스’에서 주인공 루피는 초반에 의미 없는 동경의 대상인 해적왕이 되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해적왕에 대한 의미는 해체되고, 루피의 깊은 내면에 ‘꿈’이 의미 있게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내 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온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꿈이 같을 수는 없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혈연이나 지연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비전을 향해 비상하고 싶은 열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을 지녔다면 가족이 아닌 운명의 대상을 만나야 한다.

社說

3월 임시국회 유치원 3법 등 처리 서둘러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지난해 말부터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아직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은 일단 봉합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 3월 임시 국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 분만에 해산했다. 하지만 3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안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여야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

장 주제로 열린 ‘조월회’ 모임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소집 요구서가 이날 제출되면 오는 7일부터 올해 첫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민생 법안과 현안들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개학 연기 투쟁의 빌미가 된 ‘유치원 3법’의 처리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확정안 제출 법정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안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과 ‘5·18 망안’ 파동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남은 쟁점과 세부 의사 일정에 대한 원만한 조율 등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로 밀린 속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갈수록 줄어드는데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94)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지난 주말 숨을 거뒀다.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인데 이로써 나라 전체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도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2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다. 1944년 봄, 만 열아홉의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뒀산 개강제로 연행됐다. 중국으로 끌려간 곽 할머니는 1년 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곽 할머니는 60여 년을 중국에서 살면서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후 한국정신대원구조사 도움으로 2004년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정의기억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면서 “할머니는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 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 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도 “생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훌훌 털어 버리고 봄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아직 요원한데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곽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0명 중 생존자는 22명에 불과하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도 93~94세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 나옥분(나문희 분) 할머니는 일본인들에게 ‘아이 엠 소리(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외친다. 상처로 얼룩진 할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에나 오려나.

無等鼓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키리졸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이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봄에 하는 위게임(War Games)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69년 북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포커스레티나’라는 합동 군사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이후 1971년부터 ‘프리덤볼트’, 1976년부터는 ‘팀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대규모 합동 훈련을 했다. 또한 1994년부터는 북미 협

키리졸브 훈련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으로 명시, 북에 대한 공격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결렬로 한반도에 평화 기운이 잠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양국 모두 추가적인 대화를 희망하는 만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키리졸브 훈련마저 없어지면서 북한은 핵 보유 명분도 더 약해졌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거세게 일었으면 좋겠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	227-9600
여론매체부	220-0652	업무	220-0551
예향부	220-0692	인사	222-0195
사진부	220-0693	총무	222-0195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